

kiri Weekly

2016.6.20. 제389호

포커스

기업 구조조정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이슈 분석

스마트공시 도입의 필요성과 선결조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통과와 시사점

글로벌 이슈

고액순자산보유자를 위한 보험 수요 및 판매 전략
글로벌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관련 설문조사

금융시장 주요지표

kiri 보험연구원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포커스와 이슈 분석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여의도동 35-4) 8층 보험연구원 (문의 : 변철성 수석담당역 / 02-3775-9115)



기업 구조조정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전용식 연구위원, 이해은 연구원

요약

- 조선·해운업 등의 수익성 악화와 대출부실 증가로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함.
 - 매출액 증가율과 자기자본순이익률은 2010년 이후 하락하고 있으며 2016년 1/4분기 은행권의 조선·해운업에 대한 대출 가운데 부실대출비율은 각각 12.03%, 11.43%를 기록함.
 - 조선·해운업 이외에 철강, 석유화학, 건설업 등에서도 선제적 상시 구조조정이 추진될 계획임.
- 이들 업종의 생산 위축이 가시화된 2012년 이후 손해보험회사의 기업성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은 감소하기 시작함.
 - 기업의 생산활동 위축은 기업성보험 수요 감소를 초래하였고 보험료 하락을 가속화한 것으로 보임.
- 기업 구조조정이 확대될 경우 고용과 설비투자 위축으로 인한 내수 위축, 기업 수익성 회복 지연으로 인한 부실대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임.
 - 기업 구조조정은 인력 및 생산시설의 감축으로 이어질 것이고 세계경제 회복세 지연은 구조조정 기업의 수익성 개선을 지연시킬 것으로 예상됨.
 - 수익성 개선이 지연될 경우 은행, 보험회사의 대출 부실화가 가속화될 우려가 있음.
- 기업 구조조정 장기화가 신용경색으로 이어질 경우 국내 경제 부진은 장기화될 것이고 이로 인해 보험 및 연금자산 수요가 감소할 수 있음.
 - 국내 경제 부진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 감소세가 지속될 수 있음.
 - 가계와 비영리단체의 보험 및 연금자산 증감액은 2012년 99조 1,778억 원에서 2015년 93조 1,805억 원으로 감소함.
- 일반손해보험의 위축, 보험 및 연금자산 수요 감소가 지속될 경우 보험회사의 수익성 악화와 미래 성장 가능성을 약화시킬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비용절감 방안, 미래 수익원 확보를 위한 인수위험 다변화, 사업 및 지역 다각화 등을 위한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함.

1. 검토 배경



■ 조선·해운업의 구조조정은 실물경제 둔화세를 가속화시키고 있음.

- 전 세계적인 수요 둔화, 중국과의 경쟁심화로 조선업의 수출비중은 2009년 12.4%에서 2015년 말 기준 7.6%로 감소함.
- 조선업 외에도 석유화학, 철강 등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주도했던 업종의 수출 및 생산 감소, 수익성 둔화는 고용 위축과 투자 감소로 이어짐.

■ 실물경제 둔화는 보험수요 둔화와 보험회사 자산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음.

- 기업성보험 손해율 개선으로 인한 보험료 하락과 더불어 조선·해운업의 생산감소는 기업성보험 수요 감소로 이어져 보험료 하락세를 가속화시키고 있음.
- 구조조정 대상 기업들의 수익성 회복이 지연될 경우 이들 기업의 대출채권을 갖고 있는 은행과 보험회사의 부실대출이 증가할 것임.
- 실물경제 회복 지연으로 인해 가계성보험 수요 둔화도 확대될 우려가 있음.

■ 본고에서는 기업 구조조정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현재의 수익 감소와 자본확충 부담 등으로 미래 수익원 확보를 위한 투자가 지연될 경우 보험산업의 지속가능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함.

2. 기업 구조조정과 금융회사 자본확충 부담



■ 조선·해운업 등 5개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이 확정됨.

- 2016년 4월 26일 금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조선, 해운, 철강, 석유화학, 건설 등 5개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을 본격화할 계획임.¹⁾

- 조선, 해운 등 경기민감업종은 구조조정 협의체와 채권단 및 기업에서 구조조정을 진행
 - 철강, 석유화학 등 공급과잉 업종은 기업이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을 진행
 - 이외에도 부실징후 기업은 채권단이 주채무계열 평가, 상시 신용위험평가 등을 통해 상시 구조조정을 진행
- 2016년 6월 8일 발표된 구조조정 방안의 핵심은 은행의 조선·해운업에 대한 부실대출로 인한 자본감소를 정부와 한국은행이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임.

■ 은행권의 조선·해운업에 대한 대출 규모는 약 70조 원으로 추산되고, 향후 부실이 확대될 경우 자산건전성 훼손으로 인한 자본확충 부담이 커질 것임.

- 은행권의 부실대출비율은 2016년 1/4분기 기준으로 1.87%이며, 조선업은 12.03%, 해운업은 11.43%, 건설업은 4.27%를 기록함.
 - 2011년 1/4분기 2% 이후 5년만의 최고치이며 미국 1.54%, 일본 1.53%보다 높은 수준임.
 - 부실대출 규모는 31조 3,000억 원으로 2015년 말 30조 원에 비해 1조 3,000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부실대출의 93.3%가 기업대출임.
- 현재 ‘정상’으로 분류된 일부 조선사의 대출이 부실화될 경우 부실채권비율은 더 상승할 것임.
 - 국책은행의 부실대출비율이 높고 시중은행들의 부실채권비율은 1% 수준에 불과하나 시중은행의 부실채권비율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대출채권이 부실화될 경우 은행은 부실단계별로 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는데, 충당금 적립은 은행의 자본을 감소시켜 신용공급 여력을 감소시킬 것임.

〈표 1〉 은행권의 여신부문별 부실채권비율

(단위: %)

구분	2010년 3월	2010년 12월	2011년 12월	2012년 12월	2013년 12월	2014년 12월	2015년 12월	2016년 3월
부실채권비율	1.48	1.90	1.36	1.33	1.79	1.55	1.80	1.87
기업여신 ¹⁾	1.96	2.60	1.73	1.66	2.39	2.09	2.56	2.67
가계여신	0.51	0.56	0.60	0.69	0.60	0.49	0.35	0.36
신용카드	1.16	0.97	1.36	1.48	1.34	1.11	1.14	1.40

주: 1) 공공·기타부문 포함.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6. 6) 참고.

1) 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2016. 4. 26),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관련”.

■ 2012년 이후 증가율이 확대된 보험회사 기업대출 규모는 크지 않지만 신용위험이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클 수 있음.

- 보험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기업들이 은행권에서 신규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만기 연장이 어려운 기업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임.
- 2016년 1/4분기 은행권의 대기업 부실채권비율이 4.07%라는 점과 보험회사에서 기업대출을 받은 기업들의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보험회사의 기업대출 부실비율은 4.07%보다 더 높을 수 있음.

〈표 2〉 생명보험, 손해보험회사의 기업대출 규모

(단위: 십억 원, %)

구분		FY2010	FY2011	FY2012	FY2013	2014	2015
생명보험	기업대출	21,533 (6.93)	23,149 (6.04)	26,162 (5.87)	31,468 (6.73)	36,550 (6.99)	41,895 (7.31)
	총대출	72,744 (23.42)	80,394 (20.97)	86,141 (19.32)	95,345 (20.40)	104,146 (19.91)	114,699 (20.00)
손해보험	기업대출	6,624 (8.10)	8,427 (8.23)	11,036 (8.97)	13,428 (9.88)	19,802 (12.21)	23,449 (12.79)
	총대출	18,471 (22.58)	23,269 (22.72)	28,250 (22.96)	33,740 (24.82)	42,465 (26.19)	50,103 (27.32)

주: 괄호 안의 수치는 운용자산대비 비중이며, 2014년은 2014년 3월부터 12월까지임.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보험회사의 부실대출이 증가할 경우 자본확충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 IFRS4 Phase2 도입으로 보험회사의 자본확충 부담이 확대되고 있는데, 보험회사 기업대출 부실이 증가할 경우 총당금 적립 부담이 가중될 것임.

3. 기업 구조조정의 보험회사에 대한 영향



■ 조선, 해운업 등 5개 업종의 수익성 둔화와 생산 감소는 기업성보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기업성보험이 60%를 차지하는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은 2012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하였는데, 이는 기업성보험 수요 감소로 인한 보험료 하락이 원인일 것으로 판단됨.

- 조선 등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해운 등 운수업 매출액 증가율은 2011년 4.52%, 6.39%에서 2014년 -1.76%, 2.27%로 감소
- 자기자본순이익률의 경우 조선 등 기타운송장비 제조업은 2011년 4.24%에서 2014년 -4.91%로 감소하였고, 해운 등 운수업은 2014년 2.2%였으나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마이너스를 기록함.
- 기업성보험 손해율 개선으로 인한 보험료 하락과 더불어 주요 업종의 생산 감소와 기업성보험 수요 감소는 보험료 하락세를 가속화시키고 있음.

〈그림 1〉 조선·해운업의 매출액 증가율과 자기자본순이익률 추이



자료: 기업경영분석,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은 FY2011년 14.9%를 기록했으나 2014년 -0.26%를 기록함.
 - 2014년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8조 1,424억 원이며 해상보험과 특종보험의 비중은 각각 9.0%, 61.4%를 차지하고 있음.
 - 해상보험은 조선·해운업, 특종보험 중 기업 종합보험은 기업의 생산, 보증보험은 건설업 경기와 관련이 있음.
 - 해상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은 FY2013년 -16.97% 이후 2015년 -3.43%로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고, 특종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도 FY2012 이후 둔화되고 있음.

〈표 3〉 일반손해 종목별 원수보험료 증가율

(단위: %)

구분	FY2010	FY2011	FY2012	FY2013 ¹⁾	2014 ²⁾	2015
화재	-3.72	1.44	21.75	0.65	-3.42	-2.10
해상	-4.07	12.67	5.75	-16.97	-2.19	-3.43
보증	6.39	16.14	4.15	-4.08	-0.65	4.40
특종	11.52	14.57	12.50	6.41	1.19	3.07
해외원보험	11.92	36.05	54.11	40.15	-6.81	-8.97
일반손해 합계	7.59	14.90	10.71	3.30	-0.26	1.67

주: 1) FY2013 증가율은 2012년 1~12월 수치와 비교함.

2) 2014 증가율은 2013년 1~12월 수치와 비교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내수 위축은 기업성보험 감소와 더불어 장기적으로 가계의 보험 및 연금 수요 감소로 이어질 것임.

- 기업 구조조정 대상 5개 업종의 생산활동 및 수익성 회복이 지연될 경우 고용 위축, 투자 감소 등 내수 위축은 지속될 것임.
 - 일본의 경우 자산버블 붕괴 이후 부실채권 처리에 약 10년이 소요되었고, 이 기간 동안의 내수 위축으로 현재까지 장기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기업의 생산활동 위축이 지속될 경우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 감소 규모는 확대될 우려가 있음.
- 고용 위축, 기업 투자감소 등 내수 위축은 가계소득 증가세 둔화와 가계의 금융상품 및 보험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
 - 2012년 3.8%를 기록했던 가구당 월평균 소득 실질증가율은 2015년 0.9%로 하락함.
 - 가계와 비영리단체의 보험 및 연금자산 증감액은 2011년 70조 5,756억 원에서 2012년 99조 1,778억 원으로 증가한 후 2013년 93조 6,985억 원, 2015년 93조 1,805억 원으로 감소함.

〈표 4〉 가구당 월평균 소득 실질증가율과 가계의 보험 및 연금자산 증감액

(단위: %, 십억 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가구당 월평균 소득 실질증가율 ¹⁾	2.8	1.7	3.8	0.8	2.1	0.9
가계와 비영리단체의 보험 및 연금자산 증감액	65.8	70.6	99.2	93.7	92.9	93.2

주: 물가상승을 제외한 실질소득 증가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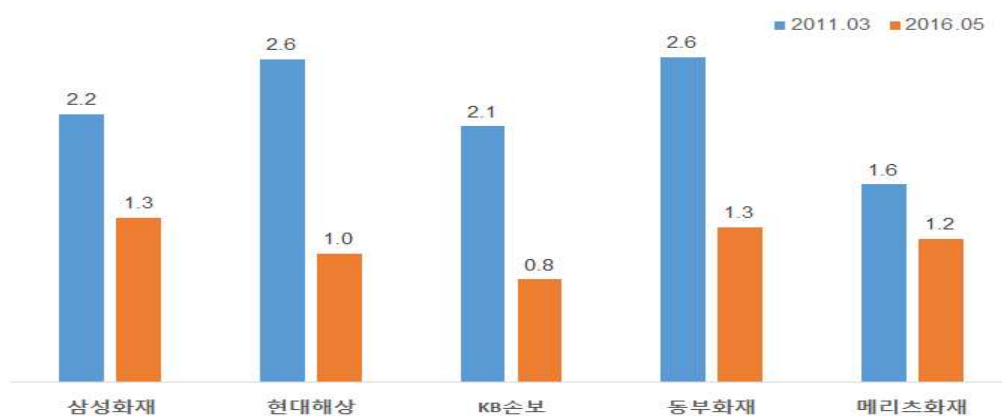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 한국은행.

■ 기업 구조조정과 국내 경기 부진 장기화는 보험회사의 수익성 둔화, 자산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보험회사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약화시킬 수 있음.

● 보험회사의 수익성 악화는 자본확충 여력을 약화시킬 것이며, 기업 구조조정이 장기화될 경우 보험회사의 미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음.

- 손해보험회사의 자기자본이익률(ROE)은 2010년 말 16.5%에서 2015년 말 9.6%로 하락 추세이고, 주가순자산비율(PBR)도 2011년 3월에 비해 2016년 5월 현재 더 악화되고 있음.²⁾
- 투자자들의 손해보험회사의 장래 수익성에 대한 평가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림 2〉 손해보험회사의 주가순자산비율(PBR)



자료: 인포맥스.

4. 결론 및 시사점

■ 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경기 부진은 중국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음.

● 공급과잉으로 인한 중국 기업의 수익성 악화 및 부채비율 상승 그리고 중국 은행의 부실대출비율 상승과 경제성장률 둔화 현상은 우리나라와 유사함.³⁾

- 중국 경제 둔화는 국내 기업의 수출 감소로 이어져 경기회복 지연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2) 주가순자산비율은 주가를 주당순자산으로 나눈 값임.

3) 전용식(2016. 5. 16), 「중국 은행의 부실대출 증가 현황과 영향」, 『KIRI Weekly』, 제384호.

■ **현재 수익 감소가 미래 수익 감소 및 성장성 둔화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보험회사의 지역 다각화가 지속되어야 함.**

- 수익성 악화와 가중되는 자본확충 부담은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해외사업 위축과 미래 성장가능성 약화로 이어질 수 있음.
- 보험회사의 해외사업은 인프라 구축 등 현지화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로드맵 마련을 통해 효율화를 모색해야 함.

■ **미래 수익원 확보를 위해 보험회사의 경쟁력을 배가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수익성 둔화에 대한 단기적인 대응 방안으로 비용절감을 고려할 수 있는데, 비용절감 효과는 장기간 지속되기 어려워 궁극적으로는 수익원 다변화가 필요함.
- 수익원 다변화를 위해 보험회사는 인수위험을 다변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위험평가 역량이 배가되어야 함.
 - 독일의 알리안츠는 사업다변화를 위해 기업의 위험관리 자문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고령인구 대상 자동차보험, 미국 재난보험 시장으로 진출하였음.
-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고령자보험, 자산관리서비스업 등으로의 사업다변화 모색이 필요함. **kiri**